

보도일시	2021. 12. 31.(금) 조간 * 인터넷 2021. 12. 30.(목) 12:00 이후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	과장 이상임 사무관 이병렬	044-202-7496 044-202-7467
	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	선임연구위원 전기택 전문연구원 이선행	02-3156-7178 02-3156-7168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우리 시도의 일·생활 균형 수준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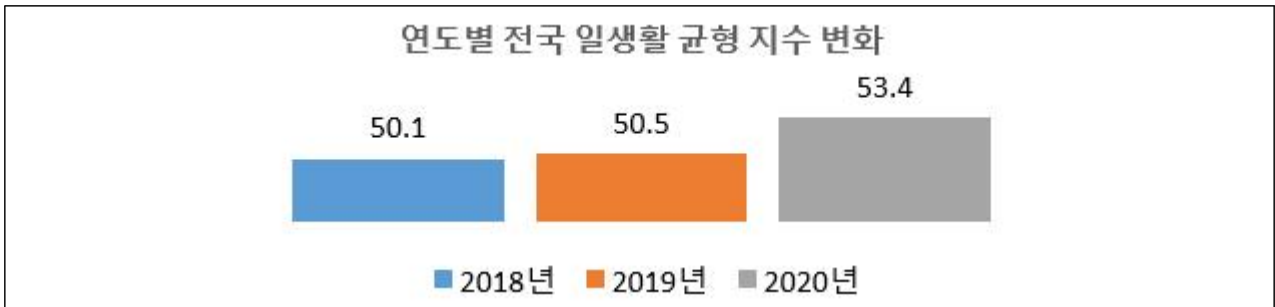
◆ 2020년 기준 지역별 일·생활 균형 지수 발표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'2020년 기준 지역별 일·생활 균형 지수'를 발표했다.
- 일·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, 생활,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,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*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.
- * 지표별 최대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도별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함
- 이번에 산출한 일·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사·자문·검증,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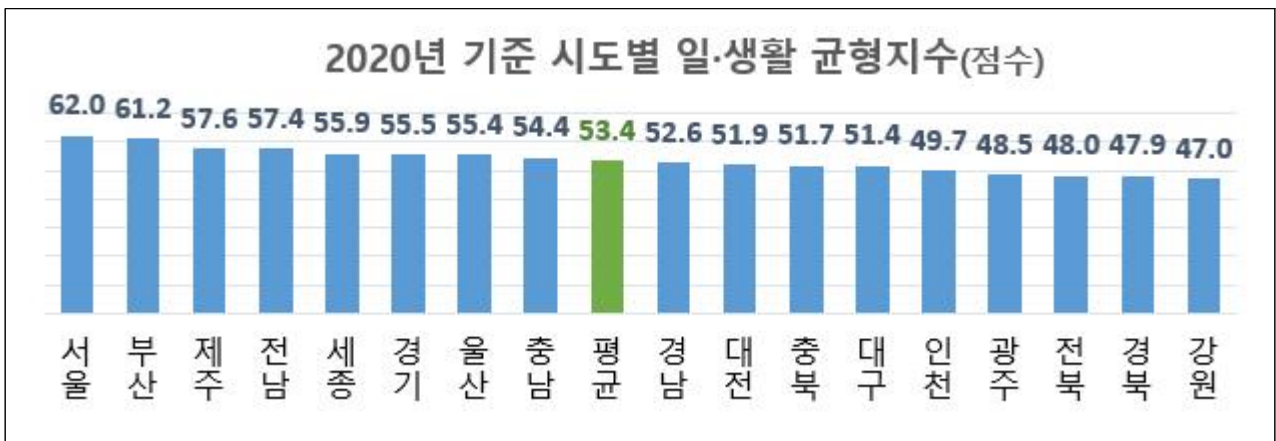
< 일·생활 균형지수 산출 세부지표 >

영역(배점)	세부 지표(24개 지표)
일 (22.1점)	①총 근로시간, ②초과 근로시간, ③휴가기간, ④유연근무제 도입률, ⑤유연근무제 이용률
생활 (30.1점)	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,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,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,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, ⑤평일 여가시간, ⑥평일 여가시간 충분도, ⑦일여가생활 균형 정도
제도 (25.0점)	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,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,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,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, ⑤국·공립 보육시설 설치율,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, ⑦일·가정 양립제도 인지도
지자체 관심도 (22.8점)	①일·생활 균형 조례 유무, ②일·생활 균형 제도 홍보, ③담당조직 유무, ④일·생활 균형 관련 교육 컨설팅,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

- 2020년 기준 일·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3.4점으로 2019년 평균 50.5점보다 2.9점이 증가하였고,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·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


- 전국 광역시도별 일·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,
 - 전반적인 일·생활 균형 수준은 서울(62.0점), 부산(61.2점), 제주(57.6점), 전남(57.4점), 세종(55.9점)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.



- 영역별 일·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,
 - “일 영역”에서는 총근로시간(182.8시간→163.4시간) 및 초과근로시간이 감소(12.2시간→10.0시간)하는 등 일에 대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의 확산*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

* 유연근무 제도 도입률(19.8%→27.1%)과 이용률(11.6%→14.2%)이 모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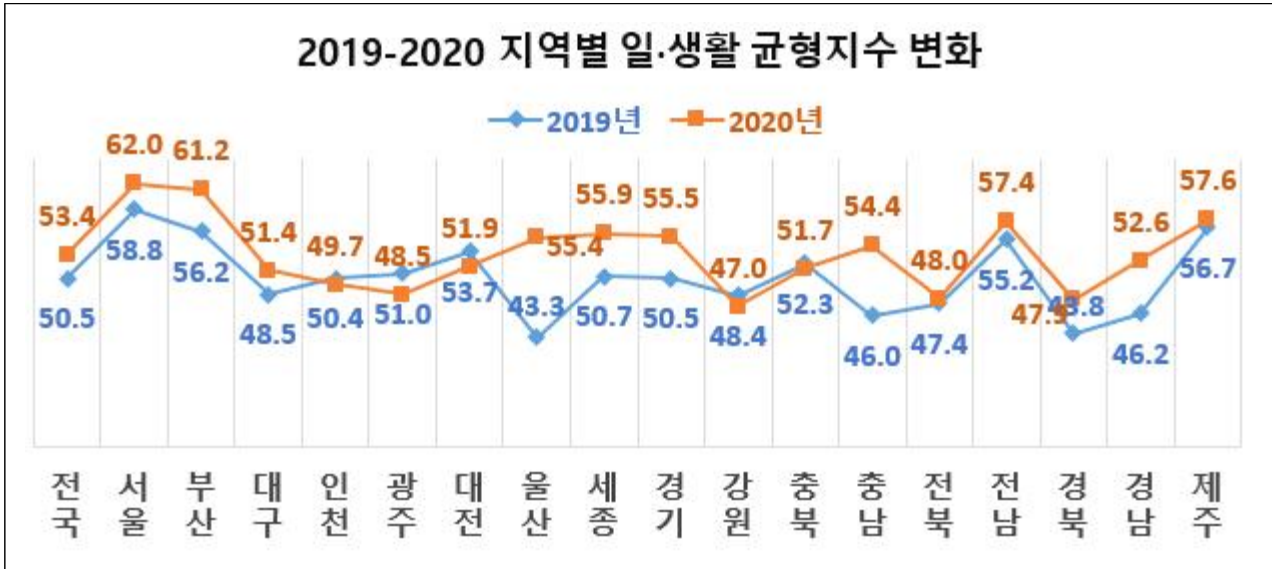
- “생활 영역”에서는 ‘가사 일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’는 견해 비율이 상승(58.7%→62.1%)하였고, 평일 여가 시간 및 일·여가 생활의 균형 정도가 크게 개선되는 등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과 일·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- “제도 영역”에서는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,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모두 증가하는 등 일·생활 균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.
- “지자체 관심도 영역”에서는 일·생활 균형 조례 제정, 전담 부서 및 인원 확충, 관련 시설 및 교육·컨설팅의 지표 점수가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-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, “일 영역”은 울산(15.8), 부산(15.5), 서울(15.4), “생활 영역”은 제주(20.2), 부산(17.3), 울산(17.1), “제도 영역”은 서울(20.8), 세종(20.7), 울산(17.1), “지자체 관심도” 영역은 경기(13.0), 부산(12.7), 전남(11.8)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
< 2020년 기준 시도별 일·생활 균형지수 >


순위	지역	계 (100점)	일 (22.1점)	생활 (30.1점)	제도 (25.0점)	지자체 관심도 (22.8점)
	전국 평균	53.4	13.7	15.9	15.7	8.0
	시	54.5	14.4	16.0	16.6	7.5
	도	52.5	13.2	15.9	14.9	8.5
1	서울	62.0	15.4	15.5	20.8	10.2
2	부산	61.2	15.5	17.3	15.7	12.7
3	제주	57.6	14.8	20.2	16.0	6.6
4	전남	57.4	14.6	15.2	15.6	11.8
5	세종	55.9	13.4	15.3	20.7	6.5
6	경기	55.5	13.4	14.9	14.2	13.0
7	울산	55.4	15.8	17.1	17.1	5.4
8	충남	54.4	13.4	15.4	16.5	9.1
9	경남	52.6	12.7	16.3	15.1	8.4
10	대전	51.9	14.5	15.8	15.0	6.6
11	충북	51.7	12.5	15.3	15.6	8.3
12	대구	51.4	13.6	15.1	14.7	8.0
13	인천	49.7	13.6	15.5	15.0	5.6
14	광주	48.5	13.1	16.1	14.0	5.3
15	전북	48.0	11.7	16.1	12.7	7.4
16	경북	47.9	12.2	14.7	14.6	6.4
17	강원	47.0	13.0	15.3	13.5	5.2

* 소숫점 둘째자리 반올림


- 한편, 2019년 지수와 비교하여 향상된 정도를 살펴볼 때, 울산(10단계 상승)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, 뒤를 이어 충남(7단계 상승), 경남(5단계 상승)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.



-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“사회적 관심, 지자체의 노력 등에 힘입어 일·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.”라고 하면서,
 - “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의 확산이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일·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

공공누리



출처표시
상업용금지
변경금지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사무관(☎044-202-7467) 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박사(☎02-3156-7178), 이선행 연구원(☎ 02-3156-7168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지역별 일·생활 균형 지수 자료

□ 전년대비 현황(2019년-2020년)

지역	2019년					2020년				
	총점	일	생활	제도	관심도	총점	일	생활	제도	관심도
전국평균	50.5	12.0	15.6	13.4	9.5	53.4	13.7	15.9	15.7	8.0
시 평균	51.6	12.0	15.7	14.5	9.4	54.5	14.4	16.0	16.6	7.5
서울	58.8	13.4	15.8	19.9	9.7	62.0	15.4	15.5	20.8	10.2
부산	56.2	11.0	17.5	13.2	14.4	61.2	15.5	17.3	15.7	12.7
대구	48.5	11.6	15.6	11.5	9.8	51.4	13.6	15.1	14.7	8.0
인천	50.4	12.1	15.4	13.4	9.5	49.7	13.6	15.5	15.0	5.6
광주	51.0	12.5	15.8	11.5	11.2	48.5	13.1	16.1	14.0	5.3
대전	53.7	15.5	15.9	15.2	7.2	51.9	14.5	15.8	15.0	6.6
울산	43.3	9.8	14.9	12.6	6.1	55.4	15.8	17.1	17.1	5.4
세종	50.7	10.1	15.1	18.5	7.0	55.9	13.4	15.3	20.7	6.5
도 평균	49.6	12.0	15.6	12.5	9.6	52.5	13.2	15.9	14.9	8.5
경기	50.5	11.9	14.6	12.6	11.4	55.5	13.4	14.9	14.2	13.0
강원	48.4	15.2	14.5	11.1	7.6	47.0	13.0	15.3	13.5	5.2
충북	52.3	10.2	15.9	14.1	12.2	51.7	12.5	15.3	15.6	8.3
충남	46.0	10.3	14.8	13.2	7.7	54.4	13.4	15.4	16.5	9.1
전북	47.4	12.0	15.4	10.5	9.4	48.0	11.7	16.1	12.7	7.4
전남	55.2	14.2	15.4	12.4	13.3	57.4	14.6	15.2	15.6	11.8
경북	43.8	10.2	14.7	11.4	7.6	47.9	12.2	14.7	14.6	6.4
경남	46.2	10.5	16.6	12.9	6.3	52.6	12.7	16.3	15.1	8.4
제주	56.7	13.7	18.3	14.0	10.6	57.6	14.8	20.2	16.0	6.6

□ 전년대비 순위변화(2019년-2020년)

지역	2019		2020		점수변화	순위변화	
	점수	순위	점수	순위		점수	순위
서울	58.8	1	62.0	1	3.2	-	0
부산	56.2	3	61.2	2	5.0	↑	1
대구	48.5	11	51.4	12	2.9	↓	1
인천	50.4	10	49.7	13	-0.7	↓	3
광주	51.0	7	48.5	14	-2.5	↓	7
대전	53.7	5	51.9	10	-1.8	↓	5
울산	43.3	17	55.4	7	12.1	↑	10
세종	50.7	8	55.9	5	5.2	↑	3
경기	50.5	9	55.5	6	5.0	↑	3
강원	48.4	12	47.0	17	-1.4	↓	5
충북	52.3	6	51.7	11	-0.6	↓	5
충남	46.0	15	54.4	8	8.4	↑	7
전북	47.4	13	48.0	15	0.6	↓	2
전남	55.2	4	57.4	4	2.2	-	0
경북	43.8	16	47.9	16	4.1	-	0
경남	46.2	14	52.6	9	6.4	↑	5
제주	56.7	2	57.6	3	0.9	↓	1

참고 2

일·생활 균형 지역별 지수 산출 기준표

영역	지표명	자료원	기준값	비고	
일 (5개)	총근로시간	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보고서 (세종, 충남 통합)	150시간	1,800시간/12개월	
	초과근로 시간	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보고서 (세종, 충남 통합)	2.0시간	2023년 추정값	
	휴가기간(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)	국민여가활동조사	15일	2017년 근로자 평균연차 휴가부여일수(15.1일)	
	유연근무제도 도입률	일가정양립실태조사 (세종, 충남 통합)	36.4%	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% 가산	
	유연근무제도 이용률	일가정양립실태조사 (세종, 충남 통합)	21.6%	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% 가산	
생활 (7)	가족 (4개)	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	생활시간조사(공표주기 5년)	0.5	남성 가사노동시간 /전체 가사노동시간
		여성취업에 대한 견해	사회조사(홀수해)	81.2%	2023년 추정값
		가사분담에 대한 견해	사회조사(짝수해)	74.1%	2023년 추정값
		일과 가족생활 우선도	사회조사(홀수해)	12.5%	2023년 추정값
	여가 (3개)	여가시간(평일)	국민여가활동조사	5.69시간	2023년 추정값
		여가시간 충분도(평일)	국민여가활동조사	100점	7점 만점 기준
		일·여가생활 균형 정도	국민여가활동조사	10.0%	2023년 추정값
제도 (7개)	여성 육아휴직 이용(시행기업)	고용보험DB	2.60%	2023년 추정값	
	남성 육아휴직 이용(시행기업)	고용보험DB	0.59%	2023년 추정값	
	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(시행기업)	고용보험DB	0.37%	2023년 추정값	
	배우자 출산휴가 이용(시행기업)	일가정양립실태조사 (세종, 충남 통합)	9.4%	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% 가산	
	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	보육통계	25.6%	2023년 추정값	
	초등돌봄교실 이용률	학교알리미	24.9%	2023년 추정값	
	일·가정양립 제도 인지도	일가정양립실태조사 (세종, 충남 통합)	81.6점	2023년 추정값	
지자체 관심도 (5개)	일·생활 균형 조례 유무	자치법규 정보시스템	1.0점	조례 제정, 근로자(시민) 및 기업지원 명시 만점(1점)	
	지자체의 일·생활 균형 제도 홍보	일가정양립실태조사 (세종, 충남 통합)	19.9점	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% 가산	
	담당조직 유무	시도 홈페이지(조직도) 및 관련 자료	1.1점	담당조직 형태 만점(1점)+ 관련 조직 5개	
	일·생활 균형 관련 교육·컨설팅	일가정양립실태조사 (세종, 충남 통합)	13.8%	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% 가산	
	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시설 현황	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등	28.06개 인구 천명당	2023년 추정값	